

# 크메르 전승 문헌의 특징과 구성

## - Dasabodhisattauddesa 9-10장 도입부를 중심으로 -

안재근\* · 김경래\*\*

- I. 서론
- II. 미래불의 등장
- III. 비현실적 묘사
  - 1. 미래불의 모습
  - 2. 이상적 세계: 깎뻘 나무
- IV. 언어적 특징: Khmer Vernacular Pāli
- V. 결론

### ■ 한글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다사보디삿따웃테사(Dasa-Bodhisatta-Uddesa)』라 불린 후기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문헌적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광범위한 테라와다 문헌사 속에서 크메르 전통의 대표적인 텍스트였던 이 내러티브는, 비록 학계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대 신앙을 이끌며 대중적 호응을 얻었던 대표적인 문헌들 중 하나였다. 이 텍스트는 고탐마 붓다 당시 활동했던 주변 인물들 중 미래에 붓다가 될 열 명의 중생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특히 이 텍스트 9장과 10장은 고탐마 붓다와 인연이 깊었던 두 마

\* 제1저자, 서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부교수

리의 코끼리가 환생하여 붓다가 된다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9장은 데와닷따의 사주를 받아 붓다를 해하려 했던 다나빨라(Dhanapāla) 코끼리가 담마세나(Dhammasena) 왕자로 태어나 왕이 된 후 극단적인 보시를 통해서 도솔천에 환생하여 락사(Tissa)라는 미래불이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0장은 고타마 붓다가 숲 속에서 홀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보호하며 공양을 올렸던 성스러운 코끼리 빠릴레야(Pāḷiḷeyya)에 대한 이야기이다. 빠릴레야 코끼리는 전륜성왕으로 태어나 수행을 한 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보시를 통해 목숨을 잃지만, 결국 도솔천에 태어나 수망갈라(Sumaṅgala)라는 미래불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두 가지 흥미로운 내러티브 속에서 『다사보디삿따웃데사』는 미래불의 등장시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테라와다 전통이 지니고 있던 순환적 세계관을 더욱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장의 표현방식과 달리, 붓다를 초월자로서 다소 과장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 문헌 속에서 붓다들은 30미터가 넘는 키에 무한대에 가까운 수명을 지니고 있으며, 빛줄기를 뿜어내어 세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붓다가 등장하는 시기에 인간계에는 신비로운 나무인 깎빠나무(Kapparakkha)가 자라나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한편, 이러한 독특한 내러티브 서사과정 속에는 기존의 빠알리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시제의 혼용과 복합어 사용, 특수한 단어 용례 등의 언어적 특징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통해 『다사보디삿따웃데사』로 대표되는 크메르 전통만의 독특한 문헌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크메르, 테라와다, 빠알리, 『다사보디삿따웃데사』, 락사, 수망갈라, 내러티브

## I. 서론

대부분의 종교전통은 성전(Canonical Text)으로 여겨지는 핵심 문헌(혹은 문헌군)을 지니고 있다. 불교의 경우 경과 율, 그리고 논으로 구성된 삼장

(Tipitaka)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빠알리(Pāli) 문헌을 전승하고 있는 테라와다(Theravāda) 전통 역시 그들의 주석서(Pāli-aṭṭhakathā)를 통해 이 삼장을 ‘근본 문헌(Mūla)’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남아시아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온 테라와다 불교 전통에서는 삼장 못지않게, 쉽고 재미있는 내러티브들 또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다. 『자따까(Jātaka)』로 대표되는 이 내러티브 장르는 점차 일반인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주요 문헌으로 발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만한 당대의 다양한 소재들이 추가되면서 독특한 지역 특색을 지닌 후대 내러티브 문헌들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모든 불교전통의 핵심 문헌군을 과연 삼장으로만 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sup>1)</sup>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크메르 전통의 실질적인 불교신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내러티브들 중 하나인 『다사보디삿따우테사(Dasa-Bodhisatta-Uddesa, 이하 DBU)』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텍스트의 저자와 제작연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현재 캄보디아에 해당하는 크메르 제국의 영역에서 제작되었거나 혹은 이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자가 저술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작연대는 상대적으로 후대인 10~15세기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히닝버(Oskar von Hinüber)에 따르면, 이 텍스트는 미래 연대기를 의미하는 『안아가따왕사(Anāgatavamsa)』 혹은 『안아가따다사붓다왕사(Anāgatadasabuddhavamsa)』 등 다양한 제목으로 전승되었고, 남아시아 지역의 빠알리 체계를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sup>2)</sup>

이 텍스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는 프랑수와 마티니(François Martini)가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의 BEFEO(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에 출판한 ‘Dasa-bodhisatta-uddesa. Texte pâli, publié avec une traduction et un index grammatical’이 있다. 마티니는 자신이 입수한 세

1) Skilling(2012), Introduction.

2) Hinüber(1996), p.98. 이후 본문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문헌에 적용된 빠알리 체계는 새로운 문법형태를 따랐다가보다는 크메르 현지어에 영향을 받은 Khmer Vernacular Pāli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개의 필사본들을 비교 분석하여 DBU의 최초 편집본을 출판했고, 서문을 통해 자신이 참고한 필사본들의 차이점과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다소 피상적이고 광범위하기에,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 및 비판적 평가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대신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문헌적 특징과 삼장 문헌 간의 상호관련성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텍스트는 붓다 시절의 여러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자따까(Jātaka)』와 상당히 유사한 서사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러티브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DBU 각 장들의 도입부에서 붓다는 자신의 상수제자인 사리불에게 미래에 등장할 붓다들을 예언한다. 이러한 서술은 대다수의 대승문헌들의 내러티브 도입부와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DBU는 이처럼 형식상 불설, 즉 붓다와짜나(Buddhavacana)를 표방하지만 명백히 후대에 제작된 크메르 전통의 창작물로서 당대 신자들의 종교적 욕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이 텍스트에 포함된 내러티브들의 흥미로운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고타마 붓다 시절에 활동했던 주변 인물들의 등장배경
- (2) 미래불들의 초월적인 모습
- (3) 기존의 Pāli 문법과 다른 Vernacular 문법 사용
- (4) 극단적인 보시를 통한 해탈

본 논문에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된 DBU 중에서 제 9장 락사(Tissa)와 제 10장 수망갈라(Sumāṅgala) 비교분석을 통해 위에 언급된 네 가지 특징들 중 첫 세 가지의 실례를 확인하며, 크메르 문헌의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sup>4)</sup>

---

3) DBU는 태국 중북부, 라오스 및 캄보디아에서도 토착언어로 제작된 다양한 판본이 유통되었다고 한다. Harris(2008), p.82.

4) 여기서 ‘극단적 보시를 통한 해탈’은 분량상 다른 연구를 통해 다루도록 하겠다.

## II. 미래불의 등장

텍스트 도입부에서 붓다는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제자인 사리뵏따(Sāriputta)를 존중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시작한다.

[Tissa:] 오! 법왕 사리뵏따여! 정등각자이신 나라시하(Narasīha)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한 겁이 끝났을 때, [부처님이] 등장하지 않는 긴 겁이 시작될 것이다. 이 긴 겁이 끝나면 최상의 겁이 도래할 것이다. 이 때 뗏사(Tissa)와 수망갈라(Sumaṅgala)라고 하는 두 분의 부처님이 등장하실 것이다. 먼저 [고따마 부처님 시절의] 다나빨라 코끼리는 세속에서 뗏사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sup>5)</sup>

[Sumaṅgala:] 오! 법왕 사리뵏따여! 뗏사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진 그 미래 겁에 [고따마 부처님 시절의] 빠릴레야 코끼리는 수망갈라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sup>6)</sup>

DBU는 불교전통이 지니고 있던 전통적인 순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미래불의 등장시기를 ‘겁(kappa)’으로 구분하여 위와 같이 자세히 규정해주고 있다. 사실 ‘겁’을 중심으로 한 순환적 시간관과 붓다의 수명에 대한 논의는 니까야에서부터 아비달마 논서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DBU와 같은 미래불을 서사하는 내러티브들에서 이러한 시간관, 즉 붓다의 출현 직전 ‘겁’의 쇠퇴와 변화에 대한 묘사는 더욱 자세하게 서술되어왔다.<sup>7)</sup> DBU는 이러한 전통적인 불교적 시간관을 답습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규정을 바탕으로 미래불의 등장을 예견한다.

---

5) bho Sāriputta Dhammarāja, Narasīhassa sammāsambuddhassa sāsane antarahite kappe atikkante vārasuññakappo udapādi vārasuññakappe atikkante eko maṅḍakappo udapādi. tattha kappe tissa buddho ca sumaṅgalo ca dve buddhā uppajjanti. pathamaṃ dhanapālahatthī tissa buddho nāma loke bhavissati. DBU p.323.

6) bho Sāriputta dhammarāja, Tissa buddhassa sāsane atikkante, tattha kappe hatthi-Pālileyyo anāgate Sumaṅgalo nāma buddho bhavissati. dīghaso bhagavā satṭhihattho. DBU p.330.

7) Nattier(1988), p.27.

DBU 제9장 도입부에 언급된 ‘부처님이 등장하지 않는 긴 겁’이란, *vārasuññakappa*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vāra-suñña*란 붓다가 출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suñña*) 긴 기간(*vāra*)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암울한 말법시기가 지나면 ‘최상의 겁’ 즉 *maṇḍakappa*가 도래한다. 다소 애매한 듯 보이는 이러한 표현방식은 DBU 이전 장들을 비교해볼 때 그 용법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II. Rāma:] 상서로운 겁이 지났을 때, 하나의 측량불가인 [부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겁이 일어난다 (*bhaddakappe atikkante, suññakappo ekaasamkheyyo udapādi*. DBU p.306).

[V. Nārada:] 담마사미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졌을 때, [부처님이] 등장하지 않는 100,000겁이 일어난다 (*Dhammasāmibuddhasāsane atikkante eko lakkhakappo suñño udapādi*. DBU p.313).

[IX. Tissa:] 나라시하 정등각자의 가르침이 끝나고 한 겁이 지났을 때, [부처님이] 등장하지 않는 긴 겁이 일어난다 (*Narasīhassa sammāsambuddhassa sāsane antarahite kappe atikkante vārasuññakappo udapādi*. DBU p.323).

위와 같이 DBU 2장, 5장, 9장에는 ‘부처님이 등장하지 않는 시기’를 의미하는 *suññakappa* 복합어를 수식하는 세 가지 다른 단어들(이 각각 언급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라마 붓다 등장 시기 (2장): 측량 불가한 기간(*asamkheyya*) 이후

나라다 붓다 등장 시기 (5장): 100,000겁(*lakkha*) 이후

땃사 붓다 등장 시기 (9장): 긴 기간(*vāra*) 이후

9장에 언급된 수식어 *vāra*는 삼장문헌에서는 주로 ‘기회’ 혹은 ‘시기’ (*turn, occasion, time, opportunity*) 등으로 해석되지만, 어원상 ‘긴’ 혹은 ‘다수’ (*multitude, large number*) 등의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sup>8)</sup> 따라서 DBU는 부처님

이 등장하지 않는 암흑기를 총 세 단계로 서술함으로써 그 기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그 마지막 암흑기의 단계를 *vāra-suññakappa*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 단계의 암흑기를 거치게 되면, 두 명의 붓다가 연이어 등장하게 되는 ‘최상의 기간’인 *maṇḍakappa*가 도래할 것임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DBU 9~10장은 이 기간에 등장하는 두 명의 붓다가 뗏사(*Tissa*)와 수망갈라(*Sumaṅgala*)이며 이들은 각각 다나빨라(*Dhanapāla*)와 빠릴레야(*Pāḷileyya*)라는 코끼리가 환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DBU의 모든 붓다들은 고탐마 붓다시절 그의 주변에서 활동했던 인물, 천신 혹은 동물 들이다.

뗏사 붓다의 전신인 다나빨라(*Dhanapāla*)는 날라기리(*Nālāgiri*)라고도 불렸으며, 데와닷따(*Devadatta*)가 붓다를 죽이기 위해 길들인 코끼리였다. 그러나 다나빨라는 붓다의 신통력에 굴복당한 후 붓다에게 귀의하게 된다.<sup>9)</sup> 한편, 수망갈라 붓다의 전신인 빠릴레야는 붓다가 숲에서 혼자 머물고 있을 때 붓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는 코끼리이다. 『법구경 주석서(*Dhammapada-atthakathā*)』에 따르면,<sup>10)</sup> 꼬삼비의 비구들이 사소한 논쟁으로 인해 서로 다툼을 멈추지 않자, 붓다는 이를 중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논쟁을 멈추지 않자 숲으로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낸다. 이 때, 붓다와 마찬가지로 동족 무리들에게 치친 빠릴레야 코끼리가 숲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붓다를 발견하고 그를 극진히 보살폈다고 한다.

DBU 9장에 따르면, 다나빨라 코끼리는 꼬나가마나 붓다(*Konāgamana Buddha*) 시대에 담마세나(*Dhammasena*) 왕자로 태어나게 되어 왕위를 물려받지만, 극단적인 보시를 통해 왕위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다. 그 결과 도솔천의 천신이 되어 뗏사 붓다로 환생하게 된다. DBU 10장의 주인공인 빠릴레야 역시 마찬가지로 까꾸산다 붓다(*Kakusandha Buddha*) 시대에 마하빠나다 전륜성왕(*Mahāpanāda cakkavattirāja*)으로 태어나 일곱 가지 보물과 왕위를 모두

8) 삼장의 용례들은 PED와 Cone 사전에서, 어원이 지닌 다양한 의미는 MWD와 Apte, 그리고 BHS 사전 참고.

9) DPPN II p.58; Vin II pp.194f; Jā V pp.333f.

10) DhA I pp.53-61.

포기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도솔천의 천신이 된 후 수망갈라 붓다로 환생하게 된다.

다나빨라는 공격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붓다를 해하기 위해 길들여졌던 난폭한 코끼리였다면, 빠릴레야는 코끼리 무리들 속에서 동족들을 보살피며 붓다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던 성스러운 코끼리였다. DBU는 붓다의 생애에 등장했던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코끼리들을 미래불 내러티브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신자들의 흥미와 종교성을 동시에 자극했을 것이다.

### III. 비현실적 묘사

DBU가 니까야의 서술방식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붓다와 그의 세계에 대한 과장되고 초월적인 묘사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대 일반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종교적 몰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원론적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도입부에서 DBU는 붓다를 거대한 불사의 초인이며 빛을 뿜어내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은 그들의 세속적 바람을 성취하며 살아간다고 역설한다. DBU는 이러한 종교적 판타지를 깎뎠 나무의 등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 1. 미래불의 모습

DBU 도입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텍스트가 언급하고 있는 열 명의 붓다를 묘사하는 방식이다.

[Tissa:] 이 존귀하신 분의 키는 80개의 팔 길이에 해당한다. 니그로다 나무(Nigrodharukkha)가 그 분의 보리수가 될 것이며, 80 나후따(nahuta)의 수명을 지니실 것이다.<sup>11)</sup>

---

11) dīghaso bhagavā asītihattho, nigrodharukkho bodhirukkho ahoṣi. bhagavā asītinahutasamvaccharāyuko hoti. DBU p.323.

[Sumaṅgala:] 이 존귀하신 분의 키는 60개의 팔 길이에 해당한다. 그 부처님[으로부터 뻗어 나온] 빛들은 한 낮의 태양처럼, 깊은 밤의 달빛처럼 빛났다. 존귀하신 [수망갈라 부처님]의 수명은 1 락카(lakkha)가 될 것이고, 나가 나무(Nāgarukkha)가 [그 분의] 보리수가 될 것이다.<sup>12)</sup>

DBU는 이처럼 미래불들의 키와 수명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과장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찌사의 경우, dīghaso bhagavā asītihattho라는 문구 속에서 바후비히 복합어(Bahubbīhi, Sk. Bahuvrīhi)인 asītihattho를 사용하여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의 80배에 해당하는 키를, 수망갈라는 60배 만큼의 키를 지닌 초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현대 수치로 환산해보면 각각 40미터와 30미터 정도에 해당하는 거대한 크기이다. 이러한 점은 붓다의 인간적인 모습을 주로 부각시켰던 삼장 문헌군과 달리, DBU에 이르러 붓다가 초인적인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신앙되었음을 보여준다.

DBU에 따르면 미래불들은 모두 저마다의 보리수를 지니고 있는데, 찌사는 니그로다 나무(Nigrodha-rukkha)에서, 수망갈라는 나가 나무(Nāga-rukkha)에서 각각 깨달음을 얻게 된다. 모든 붓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보리수 내려티브는 예컨대 『마하아빠나다 숫따(Mahāpadāna Sutta, DN 14)』에서 서술된 것처럼, 모든 붓다들의 삶에 적용되는 일종의 규칙을 만들고자 했던 전통적인 세계관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테라와다 전통만의 고유한 세계관인 다섯 가지 니야마(Niyama)들 중 담마니야마(Dhamma-niyama)에 해당하는 것으로, DBU는 자신만의 세계관 속에서 담마니야마를 재해석하여 적용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12) dīghaso bhagavā satthihatto. buddhapabhā divā ca suvaṇṇasadisā rattim ca rajatasadisā honti. bhagavato āyu ekalakkhasamvaccharam ahoṣi. nāgarukkho bodhirukkho. DBU p.330.

13) 테라와다 전통은 기존의 업설을 좀 더 확장시켜, 이 세계가 전개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다섯 가지 종류로 분석했다. 『앗타살리니(Atthasālinī)』에 따르면, 의도를 중심으로 한 행위에 의한 원인과 결과는 까마니야마(kamma-niyāma), 계절을 비롯한 연속적인 사건들의 법칙을 우뚜니야마(utu-niyāma), 씨앗과 열매로 대표되는 생물학적 인과법칙을 비자니야마(bīja-niyāma), 16 혹은 17찰나로 구성되어 있는 인식과정이론으로 완성된 마음의 흐름을 찌따니야마(citta-niyāma), 그리고 붓다의 삶에 적용되는 일괄적이고 반복적인 사건들을 담마니야마(dhamma-niyāma)로 분석하고 있다. Asl pp.271-274.

미래불들의 수명 또한 일반적인 인간의 수명과는 전혀 다른 단위로 묘사되고 있다. 밋사의 수명은 *asītinahuta*, 수망갈라는 *ekalakkha*로 서술되고 있는데, 여기서 *nahuta*와 *lakkha*는 모두 상징적이고 초월적인 단위로서 세속적인 기간으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단위개념들이다. 사실 이러한 붓다의 수명에 대한 초월적 묘사는 니까야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대반열반경 (Mahāparinibbāna Sutta, DN16)』에서 붓다가 아난다에게 남긴 유명한 언급, ‘여래는 한 겁 동안 혹은 그 겁이 다할 때까지 머물 수 있다(*tathāgato kappam vā tittheyya kappāvesam vā*)’라는 암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DBU는 삼장에서 확립된 이러한 무한대의 수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함은 물론, 10명의 미래불이 저마다 다른 단위의 초월적 수명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함으로써 내러티브의 내적 리얼리티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월적인 묘사는 붓다의 몸으로부터 표출되는 거대한 빛으로도 묘사된다. 수망갈라(DBU 10장)의 경우 이 빛에 대한 묘사가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 장들에서 이미 거듭 묘사된 중첩되는 이미지로 인해 그 구체적인 묘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밋사를 다루는 DBU 9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자세한 묘사가 발견된다.

[Tissa:] 밋사 부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줄기는 불길과도 같을 것이다. 부처님의 세 줄기 빛은 밤낮으로 빛날 것이다. 소라 고동과 같은 한 줄기 빛이 몸으로부터 나오고, 차양과 같은 또 다른 한 줄기 빛, 그리고 깃발과 같은 한 줄기 빛이 몸으로부터 나왔다. 운나룸바 빛은 1,000개의 흰 차양에 둘러싸인 것처럼 되었다.<sup>15)</sup>

DBU는 붓다의 몸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빛줄기들을 표현하기

14) 니까야에 언급된 붓다의 초월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Andrew(2004), pp.64-65와 Guang Xing(2004), pp.41-51 참고.

15) *tissabuddhassa raṇsipabhā aggisadisā viya honti. tisso buddharaṇsipabhā rattindivā bhāsanti. ekapabhā sarīrato nikkhamitvā saṃkhasadiso viya ekapabhā chattasadiso viya ekapabhā dhajasadiso viya sarīrato nikkhami. uṇṇālumbhā pabhā saḥassasetachattaparivārito viya ahoṣi. DBU p.323.*

위해 ‘소라 고동과 같은(samkhasadiso viya)’, ‘차양과 같은(chattasadiso viya)’, ‘깃발과 같은(dhajasadiso viya)’이라는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먼저 ‘소라 고동’으로 번역한 *saṅkha*는 *śaṅkha*(Sanskrit) 혹은 *saṅkha*(Pāli)에 해당하는 단어로써 나팔처럼 소리가 널리 퍼지는 이미지를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차양(*chatta*, Sk. *chattrā*)은 접혀있던 거대한 차양이 활짝 퍼지는 이미지를, 세 번째 깃발(*dhaja*, Sk. *dhvajā*)은 마찬가지로 접혀있던 깃발이 바람에 날려 펼쳐진 후 펄럭이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이들 모두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확산되는 이미지를 강조해주는 장치로 해석된다.<sup>16)</sup>

붓다의 빛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DBU는 운나롬바(*uṇṇālumbha*)라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uṇṇā*는 *uṇṇā*의 빠알리 형태로서 ‘두 눈썹 사이에 난 털’을 의미한다. *lumbha*는, ‘몸에 자라는 털’을 의미하는 *loma*와 동일한 음가인 *lum*에 같은 계열의 *bh*(Homorganic Aspirated Consonant)가 추가되어 완성된 파생 형태로서 *lumbh*에 모음 *a*가 추가된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모음인 *a*는 빠알리의 특성상 반드시 모음으로 끝나야 하는 규칙으로 인해 추가된 것이다. ‘두 눈썹 사이에 난 희고 부드러운 솜털’을 지칭하는 *uṇṇālumbha*는 붓다의 상호를 나타내는 32가지 특징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sup>17)</sup>

9장 뗏사를 서술하는 곳에서 이처럼 간략히 언급되고 있는 32상은, 이후 10장 수망갈라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다. 수망갈라가 마하빠나다 전문성왕이던 시절, 그는 붓다의 존재를 의심하며 눈앞의 붓다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자 그의 스승이 그에게 붓다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인 32상(*vattimsamahāpurisalakkhana*)과 80종호(*asīti-anubyaiijanalakkhana*)를 확인시켜 준다.<sup>18)</sup>

전통적으로 불교문헌에서 붓다의 육체가 지닌 특징은 수행의 결과물 후

16) *śaṅkha*는 소라고동이 소리를 내는 나팔의 이미지도 지니고 있지만 통상 하얗게 빛나는 이미지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śaṅkha*와 *chattrā* 그리고 *dhvajā*는 모두 불교전통에서 여덟 가지 길상(*aṣṭamaṅgala*)에 포함되는 존재로서 이미 붓다의 상징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었다.(심사과정 중 익명의 심사자의 조언을 통해 이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17) *uṇṇā ca bhamukantare jātā hoti odātā mudutūlasannibhā.* (DN 30); Digital Pāli Reader.

18) *pacchā assaṣaṃ labhitvā rājā purohitam pucchi: bho ācariya, ayaṃ rūpo buddharūpo saccam kirā ti. mahārāja, idaṃ rūpaṃ buddharūpaṃ saccam devā ti.* DBU p.332.

은 공덕과 지혜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러한 묘사를 바탕으로 붓다의 신체는 깨달음을 위한 공간 혹은 무대로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한다.<sup>19)</sup> 실제로 『락카나 숫따(Lakkhana Sutta, DN 30)』에서 붓다의 이러한 신체적 특징이 ‘위대한 인간의 신체적 특징’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목록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BU에서는 이러한 테라와다 전통의 세계관을 그대로 답습하여 붓다의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붓다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잣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왕은 앞서와 같이 정신을 잃고 쓰러다. 정신을 차리고서 그에게 물었다.  
“오 스승이시여! 이 32상과 80종호가 진정 부처님의 상호란 말입니까?”  
“대왕이시여! 이 상호야말로 진정 부처님의 상호입니다!”<sup>20)</sup>

DBU 10장에서는 이처럼 붓다의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자세히 언급하며 내러티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9장에서는 32가지 특징 중 하나만이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DBU 9장과 10장이 하나의 상응 텍스트로 취급되었으며, 내용 또한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텍스트 간의 연결구조는 이후 내러티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 2. 이상적 세계: 깎뻘 나무

DBU는 이러한 초월적 존재이며 빛을 자아내는 붓다의 시대를 ‘깎뻘 나무’라는 상징물로 묘사하고 있다.

[Tissa:]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깎뻘 나무가 생겼다. 그 깎뻘 나무에서 기, 버터, 오일, 씹을 거리 등이 생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

19) Radich(2012), pp.227-290; Ohnuma(2006), pp.223-224.

20) rājā tath’ eva visaññī hutvā, satim patilabhitvā tam pucchi: bho ācariya, ayam dvattiṃsamahāpurisalakkhaṇaṇ ca aṣīti-nubyañjanalakkhaṇaṇ ca buddhalakkhaṇaṇ saccan ti. tam lakkhaṇaṇ, mahārāja, buddhalakkhaṇaṇ saccam evā ti. DBU p.332.

이든 그 [나무]로부터 얻어 마음껏 즐길 것이다.<sup>21)</sup>

[Sumaṅgala:]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인해 많은 전리품들이 가득 걸린 한 그루의 깎뻘 나무가 생겨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농부나 상인이 되지 않고, 깎뻘 나무에 의지하여 그들 스스로 살아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깎뻘 나무에 의지하여 끝없이 부를 즐길 것이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들은 천상의 행복과도 같은 행복을 경험할 것이다.<sup>22)</sup>

고대 인도전통에서 깎뻘 나무(Kapparukkha)는 ‘우유바다 휘젓기’에서 생긴 14가지 보석들 중 하나로서, 인드라의 영역인 스와르가(Svarga)에 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 나무는 10 요자나(yojana), 즉 100km가 넘는 거대한 크기이며 사람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후 깎뻘 나무는 다양한 서사시와 내러티브들 속에서 흥미로운 상징물로 재해석되었으며, 점차 이상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로 확장되기 시작한다.<sup>23)</sup>

불교문헌에서도 깎뻘 나무는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일종의 종교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이상향으로 묘사되고 있는데,<sup>24)</sup> 이러한 점은 DBU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깎뻘 나무는 매번 붓다의 등장과 함께 도래하는 이상적인 세계의 상징으로서, 사람들은 그 나무로부터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특정한 직업이나 노동을 하지 않고도 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sup>25)</sup>

---

21) buddhānubhāvena kapparukkho udapādi. tattha kapparukkhe sappinavanītatelasabbhakkajjakam atthi. sabbe mahājanā ye ye icchanti te te tato gahetvā yathāsukham paribhuñjanti. DBU p.323.

22) buddhānubhāvena eko kapparukkho nānābhaṅḍikāhi olambanto udapādi. sabbe mahājanā na kasino na bāṇijā kapparukkham nissāya attānam jīvanti. sabbe manussā kapparukkham nissāya subhaṅganiccam kīḷanti. buddhānubhāvena sukham dibbasukham viya anubhavanti. DBU p.330.

23) Dubois(2005), p.634; Agrawala(1943), pp.1-8.

24) Punnadhammo(2018), p.84.

25) sattadivasagataphalena eko kapparukkho jāto (1장); atha buddhānubhāvena eko kapparukkho nibbatti (2장); eko kapparukkho udapādi (3장); eko kapparukkho nibbatti (4장); tasmim

‘끝없는 부를 즐길 것이다’로 번역한 *subhaṅganiccāṃ kīlanti*는 단어형태나 복합어 구조가 상당히 모호하다. 먼저 *subhaṅga*는 *su+baṅga* 혹은 *subha+aṅga*로 분석 가능하다. *su-bhaṅga*의 경우 *aṅga*가 *āga*와 동일한 음가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subhāga*, 즉 ‘행운’이나 ‘재산’, ‘부’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subha-aṅga*에서 *subha*는 ‘즐거움’이나 ‘아름다움’, ‘행복’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subha-aṅga*는 ‘일정한 행복 내지는 번영’이라는 뜻을 내포하게 된다.

이 단어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해석은 바로 코코넛 나무이다. *subhaṅga*는 ‘코코넛 나무’라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는데, 코코넛은 고대 인도종교와 농경문화, 의학 및 역사기록 등에 광범위하게 언급되어온 과일이다. 코코넛의 다양한 쓰임과 유용성으로 인해 이 나무는 ‘삶을 위한 나무 (Tree of Life)’, ‘천상의 나무(Tree of Heaven)’, 그리고 ‘칼빠 나무(Kalpavriksha)’ 즉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곤 했다. 따라서 이 단어는 깡빠 나무의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한 별칭으로도 해석 가능하다.<sup>26)</sup>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subhaṅga*라는 표현이 마티니가 참고했던 필사본들 중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티니의 DBU 에디션 330페이지 각주 6번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사용했던 세 개의 필사본들이 모두 *subhaṅga*가 아닌, *sabhaṅga*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sup>27)</sup>

---

*gate eko kapparukkho tattha dinnathāne udapādi* (6장); *buddhānubhāvena eko kapparukkho nānābhandikābharanam olambanto udapādi* (7장); *eko kapparukkho udapādi* (8장); *buddhānubhāvena kapparukkho udapādi* (9장); *buddhānubhāvena eko kapparukkho nānābhandikābharanam olambanto udapādi* (10장).

26) Ahuja et al. (2014), pp.221-248; 그러나 아후자(Ahuja)의 전거 분석들에 대해서는 좀 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코코넛’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반면, 원전해석, 특히 불교관련 문헌들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비판적이고 면밀한 검토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7) 마티니가 두 개의 필사본(K1과 K3)을 묶어서 언급한 이후, K2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앞선 두 필사본의 단어와 K2의 단어는 서로 다른 형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출판본에 모두 *sabhaṅga*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집작컨대 출판사의 오류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들 필사본 어디에서도 마티니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subhaṅga*라는 단어가 발견

## IV. 언어적 특징: Khmer Vernacular Pāli

이상 살펴본 DBU 9~10장 도입부에는 일반적인 삼장의 용례들과는 다소 이질감이 느껴지는 언어형태(어순, 용례, 시제 등)가 발견된다. 초기 테라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필사본의 오류로 단정하곤 했었는데, 90년대 이후 콜린스(Steven Collins)를 중심으로 한 20세기 후반 테라와다 연구자들은 이를 해당 지역 언어의 특징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sup>28)</sup>

실제로 마티니가 1936년에 출판한 DBU 교정본은 해당 지역 언어에 대한 최초 연구결과물에 해당된다. 그가 분석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총 14 가지였다: ① 철자와 발음(Orthographe et phonétique), ② 명사와 형용사(Substantif et adjectif), ③ 명사구(Composition nominale), ④ 동사구(Composes verbaux), ⑤ 격의 혼동(Confusion des cas), ⑥ 성의 혼동(Confusion des genres), ⑦ 보조 형태소(Morphèmes auxiliaires), ⑧ 수(Le nombre), ⑨ 대명사(Les pronominaux), ⑩ 동사형태론(morphologie du verbe), ⑪ 부정사와 분사(Temps périphrastiques), ⑫ 불규칙 명사와 동사(Substantif verbaux irréguliers), ⑬ 새로운 단어들(mots nouveaux), ⑭ 눈여겨 볼 의미(Remarques sémantiques).<sup>29)</sup>

위와 같은 연구 성과는 빠알리 형태가 단순히 삼장 내에서 확정된 것이 아닌,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범주 내에서 발전 및 전승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마티니가 언급한 모든 형태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논자가 분석한 DBU의 문구들을 바탕으로 당시 크메르 전통이 전승하고 있던 눈에 띄는 언어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입부에서 첫 번째로 발견되는 이질적인 언어적 특징으로는 감탄사 bho의 용례를 들 수 있다.

오! 법왕 사리뵈따여! 정등각자이신 나라시하(Narasīha)의 가르침이 사라  
지고 한 겁이 끝났을 때 ... 오! 법왕 사리뵈따여! 땃사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

---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DBU p.330 각주6 참고.

28) Collins(1994), p.3.

29) Martini(1936), pp.370f.

라진 그 미래 겁에 ... (bho Sāriputta Dhammarāja, Narasīhassa sammāsambuddhassa sāsane antarahite kappe atikkante. DBU p.323; bho Sāriputta dhammarāja, Tissabuddhassa sāsane atikkante... DBU p.330.)

브릭(David Brick)에 따르면, bho는 베다(Veda)를 비롯한 브라만 전통에서는 존칭과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반면, 불교문헌에서는 브라만 사제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어법 혹은 상징적인 기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bho는 삼장문헌에서는 존칭이라기보다는 동급 혹은 아랫 사람을 지칭하는, 다소간의 무례한 감탄사로 주로 사용되었다.<sup>30)</sup> 그러나 불교문헌에서도 점차 이 표현이 상대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한다.<sup>31)</sup>

실제로 후대 문헌에 해당하는 DBU에서는 붓다가 사리뿔따에게 미래를 예견하기에 앞서 그를 존대하기 위해 bho가 사용되고 있다. 붓다는 ‘법왕(Dhammarāja)’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자신의 제자인 사리뿔따가 다다른 깨달음의 경지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bho의 이러한 용례는 후대 남아시아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변형된 용례이다.<sup>32)</sup>

둘째, DBU 도입부에서 붓다가 미래를 서술하는 문구에는 아래와 같이 시제가 혼재되어 있다.

등장하지 않는 긴 겁이 시작될 것이다 (vārasuññakappo udapādi).

최상의 겁이 도래할 것이다 (maṇḍakappo udapādi).

두 분의 부처님이 등장하실 것이다 (dve buddhā uppajjanti).

뗏사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tissabuddho nāma ... bhavissati).

수망갈라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Sumaṅgalo nāma buddho

30) 이러한 bho의 용례는 Vinaya에서도 발견된다. mā bhikkhave tathāgataṃ nāmena ca āvusovādena ca samudācaratha. araham bhikkhave tathāgato sammāsambuddho. Vin I p.9.

31) Brick(2016), pp.567-590.

32) bho를 비롯하여 Gotama 등 삼장에서 사용되던 표현법들이 후대 빠알리 문헌에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현재 크로스비(Kate Crosby)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크로스비는 12세기 이후 스리랑카와 캄보디아에서 제작된 빠알리 문헌들에서 이러한 용례들이 극존칭을 위한 기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bhavissati).

이처럼 DBU는 과거형(udapādi), 현재형(uppajjanti), 그리고 미래형(bhavissati)을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 문구 내에서 발견되는 느슨한 시제 적용은 삼장문헌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그러나 DBU는 한 문장 혹은 이어지는 문구들 속에서 의도적으로 시제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다.<sup>33)</sup> 앞서 살펴보았듯, 깎빠나무의 등장과 관련된 문구들에서도 udapādi, atthi, paribhuñjanti, jīvanti, kiṭanti, anubhavanti 등의 과거형과 현재형이 위와 같은 형식으로 번갈아가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이 붓다의 예언 속에서 서술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시제는 모두 미래형 혹은 현재형으로 일치되었어야 더 적절했을 것이다. 이것이 DBU만의 고유한 특징인지, 아니면 크메르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특징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DBU에서 거듭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권설음과 치음의 혼용이다. 도입부에서 뗏사를 소개할 때 언급된 pathamam은 일반적인 빠알리 문법에서는 pathamaṃ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이처럼 권설음(t/th)이 치음(t/th)으로 대체되는 용례 또한 DBU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특징은 DBU 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필사본 전통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이를 크메르 문헌에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편, 복합어의 단어배열과 문법적 성(性)과 수(數)에서도 DBU만의 어색한 용례들이 발견된다.

뗏사 부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줄기는 불길과도 같을 것이다. 부처님의 세 줄기 빛은 밤낮으로 빛날 것이다. (tissabuddhassa raṅsipabhā aggisadisā viya honti. tisso buddharaṅsipabhā rattindivā bhāsanti. DBU p.323)

빛줄기로 번역된 raṅsipabhā는 ‘빛살’ 혹은 ‘광선’을 의미하는 남성명사

33) 시제의 혼용에 대한 DBU의 다양한 용례들에 대해서는 Martini(1936), p.381 참고.

rasmi 혹은 raṃsi(Sk. raśmi)와 ‘빛’을 의미하는 여성명사 pabhā가 결합된 복합어이다. 삼장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복합어의 형식을 감안한다면, 이 복합어는 pabhāraṃsi로 표현되었어야 한다. 복합어 조합방식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차이점들은 DBU 거의 모든 복합어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서, 이는 크메르 전통 속에서 발견되는 그들만의 언어적 특징이 빠알리 문헌에 투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pabhā와 관련하여, 문법적인 성과 수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가 발견된다.

소라 고동과 같은 한 줄기 빛이 몸으로부터 나오고, 차양과 같은 또 다른 한 줄기 빛, 그리고 깃발과 같은 한 줄기 빛이 몸으로부터 나왔다. (ekapabhā sarīrato nikkhamitvā saṃkhasadiso viya ekapabhā chattasadiso viya ekapabhā dhajasadiso viya sarīrato nikkhami. DBU p.323)

위의 인용문에서 ekapabhā는 문법적으로 여성형이므로 sadiso는 남성형이 아닌 여성형(sadisā)이 되었어야 했음은 물론, sadisa와 viya라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어색하다.

더 나아가 ekapabhā의 본동사를 nikkhami라는 단수 과거(aorist)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시제의 혼용은 DBU의 특징임을 감안하더라도, 세 가지 빛줄기들을 앞선 문구에서는 복수로 취급한 반면(tisso buddharaṃsipabhā … bhāsanti), 이어지는 문구에서는 단수로 취급하고 있는 것(ekapabhā … ekapabhā … ekapabhā … nikkhami)은 삼장의 맥락에서 본다면 문법적으로 어긋난 비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또한 단순한 DBU의 문법적 결합 혹은 문헌적 오류로 단정 짓기보다는 삼장에 기반한 문법체계가 아닌, 현지 크메르 전통의 언어체계 혹은 구어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논자가 발견한 흥미로운 용례는 sabba이다. 마티니에 따르면, 크메르 언어전통에서 명사의 복수 형태를 표현할 때에는 ‘모든’을 의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DBU에 언급된 sabba

는 ‘모든’이라는 원래 의미가 아닌 단순히 복수 형태를 만들기 위한 형태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sup>34)</sup> 그러나 적어도 논자가 검토한 도입부에서 만 큼은 마티니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 [나무]로부터 얻어 마음껏 즐길 것이다 ... 모든 사람들은 농부나 상인이 되지 않고, 깎빠 나무에 의지하여 그 들 스스로 살아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깎빠 나무에 의지하여 끝없이 부를 즐길 것이다(sabbe mahājanā ye ye icchanti te te tato gahetvā yathāsukhaṃ paribhuñjanti. DBU p.323; sabbe mahājanā na kasino na bāñijā kapparukkhaṃ nissāya attānaṃ jīvanti. sabbe manussā kapparukkhaṃ nissāya subhaṅganiccaṃ kīlanti. DBU p.330).

위의 인용구는 붓다의 등장과 함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깎빠나무가 등장하여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 마음껏 즐기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서 sabba는 단순히 복수 형태가 아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깎빠 나무에 의지해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DBU에 나타난 다양한 언어적 특징들을 단순한 오류로 취급해서도 안되지만, 동시에 이러한 모든 특징들을 맥락을 간과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크메르 변형 빠알리(Khmer Vernacular Pāli)로 타자 화해서도 안될 것이다.

##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크메르 전통(현재 캄보디아)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불 교문헌 『다사보디삿따웃데사(Dasa-Bodhisatta-Uddesa)』 중 9장과 10장 도입부를 살펴보았다. 고타마 붓다 당시 활동했던 중생들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

---

34) Martini(1936), p.379.

이 텍스트는, 9장과 10장에서 테와닷따의 사주로 붓다를 공격했던 다니빨라(Dhanapāla) 코끼리, 그리고 숲 속에서 홀로 지내던 붓다를 공경하고 보호해주던 빠릴레야(Pāḷileyya) 코끼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이들이 미래에 환생하여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흥미롭게 서사하고 있다.

논자가 본 논의를 통해 확인한 이 내러티브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러티브 도입부를 통해 DBU가 불설(Buddhavacana)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9~10장뿐 아니라, 총 10장으로 구성된 DBU의 각 도입부에는 고타마 붓다가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제자인 사리불에게 앞으로 등장하게 될 붓다를 한 명씩 소개하고 있다. 이는 15세기경 제작된 DBU가 불설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역설하려는 내러티브적 장치로 보인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대승문헌들과 마찬가지로 당대 독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둘째, 붓다들의 등장 시기를 불교의 순환적 시간관 속에서 ‘겁’으로 묘사하고 있다. DBU에 따르면, 붓다가 등장하지 않는 긴 암흑시기를 지나게 되면 이전처럼 다시 새로운 붓다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될 뗏사(Tissa)와 수망갈라(Sumaṅgala) 붓다가 바로 다니빨라와 빠릴레야의 환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DBU는 이처럼 기존 불교전통의 시간관을 답습하되, asaṃkheyya, lakkha, vāra, maṇḍa 등 그들만의 구체적인 겁(kappa) 구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계관을 정립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내러티브의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신앙의 아이콘으로서 초월적인 미래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DBU에 등장하는 미래불들은 모두 현실적으로 무한대의 수명을 지니고 있으며, 30미터 이상의 거대한 몸에서 장엄한 빛줄기들을 발현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더불어 붓다의 등장과 함께 ‘깍빠 나무(kappa-rukka)’라는 일종의 종교적 판타지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이 요구하는 구원론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니야마(niyama)와 삼십이상 등과 같은 테라와다 주류 전통의 전형을 답습함으로써 DBU의 정통성 또한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후대문헌이며 독창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 DBU의 종교적 정당성을 보충해주는 해석학적 장치로 판단된다.

넷째, DBU만의 독특한 문법과 용례가 발견된다. 미래(예언)를 표현하기 위해 과거, 현재, 미래시제가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복합어의 어순이 뒤바뀌고, 권설음(ṭ)이 치음(t)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필사본의 오류가 아닌, 크메르 전통의 지역 언어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sabba의 용례에서도 확인했듯, 이러한 특징들을 무작정 타자화하거나 단순화하여 모든 용례들에 적용시킬 경우 또 다른 해석상의 오류와 텍스트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테라와다 전통은 스리랑카에만 국한되지 않은 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전통이었다. 이 전통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헌과 신앙은 서로 다른 문화권과 지역적 특색을 지닌 대중들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종교적 요구를 접하게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이 전승해온 문헌들 속에서 저마다의 특색이 반영된 고유의 불교적 세계관으로 확립되어 남아있다. 따라서 삼장 이외의 다양한 지역전승문헌들을 통해 역동적인 테라와다 전통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DBU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해석에 흥미로운 정보와 가설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비록 본 논문에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된 DBU 중 9-10장의 도입부만을 검토했지만, 논자가 도출한 이러한 결과들이 향후 추가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비판 및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약어

Asl	Atthasālinī
Apte	The Practical Sanskrit-English Dictionary
BHSD	Buddhist Hybrid Sanskrit Dictionary
Cone	A Dictionary of Pāli
DBU	Dasa-Bodhisatta-Uddesa
DhpA	Dhammapada-aṭṭhakathā
DN	Dīgha Nikāya
DPPN	Dictionary of Pāli Proper Names
Jā	Jātaka
MWD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PED	The Pāli Text Society's Pali-English Dictionary
Vin	Vinaya

### 1. 원전자료

Atthasālinī, ed. by E. Müller, revised ed. by, London: Pali Text Society, 1979.

Dasa-bodhisatta-uddesa. ed. by François Martini, Texte pâli, publié avec une traduction et un index grammatical,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ome 36, 1936. pp. 287-413.

Dhammapada-aṭṭhakathā, Digital Pāli Reader Version, [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 (최종검색: 2024년 8월 3일)

Dīgha Nikāya, Digital Pāli Reader Version, [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 (최종검색: 2024년 8월 9일)

Jātaka, Digital Pāli Reader Version, [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최종검색: 2024년 8월 9일)

Vinaya, Digital Pāli Reader Version, [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최종검색: 2024년 7월 30일)

## 2. 사전

- Franklin Edgerton, Buddhist Hybrid Sanskrit Dictionary, <https://gandhari.org/dictionary?section=bhsd>(최종검색: 2024년 8월2일)
- Magaret Cone, A Dictionary of Pāli, <https://gandhari.org/>(최종검색: 2024년 7월22일)
- Monier Monier-Williams,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https://sanskritdictionary.com/>(최종검색: 2024년 7월 21일)
- T.W. Rhys Davids and William Stede, The Pāli Text Society's Pali-English Dictionary, <https://dictionary.sutta.org/>(최종검색: 2024년 8월 12일)
- Vaman Shivaram Apte, The Practical Sanskrit-English Dictionary <https://sanskritdictionary.com/>(최종검색: 2024년 7월 23일)
- 水野弘元 : 『パーリ語辞典』, <https://dictionary.sutta.org/>(최종검색: 2024년 8월 12일)

## 3. 단행본 및 논문

- Agrawala , V.S. (1943), Kalpavṛkṣa: The Wish Fulfilling Tree, *Journal of the Indian Society of Oriental Art* Vol.XI: 1-8. Abanindranath Tagore Stella Kramrisch Editors.
- Ahuja, S.C., S. Ahuja, U. Ajuja (2014), Coconut: History, uses and folklore, *Asian Agri-History* Vol.18(3): 221-248.
- Brick, David (2016), Bhoḥ as a Linguistic Marker of Brahmanical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36(3): 567-590.
- Collins, Steven (1994), Braḥ Māleyyadevattheravattu,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Vol.XVIII: 1-17, The Pali Texts Society Oxford.
- Dubois J.A. (2005), *Hindu Manners, Customs and Ceremonies*, Routledge.
- Guang, Xing (2004), *An Enquiry into the Origin of the Mahāsāṃghika Buddhism*, Tara Book Agency.
- Harris, Ian (2008), *Cambodian Buddhism: History and Practice*,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inüber, Oskar von (1996). *A Handbook of Pāli Literature*, Walter de Gruyter.
- Malalasekera, G.P. (1974), *Dictionary of Pāli Proper Names I & II*, The Pali Text Society.
- Martini, François (1936), Dasa-bodhisatta-uddesa: Texte pâli, publié avec une traduction et un index grammatical,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ome 36: 287-413.
- Nattier, Jan (1988), The meanings of the Maitreya myth: a typological analysis, *Maitreya, the future Buddha*, edited by Alan Sponberg and Helen Hardac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hnuma, Reiko (2006), *Head, Eyes, Flesh, and Blood: Giving Away the Body in Indian Buddhist Literature*, Columbia University Press.
- Punnadhammo Mahathero (2018), *The Buddhist Cosmos: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Early Buddhist Worldview; according to Theravāda and Sarvāstivāda sources*. Arrow River Forest Hermitage.
- Radich, Michael (2012), Immortal Buddhas and Their Indestructible Embodiments: The Advent of the Concept of Vajrakāya,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34(1-2): 227-290.
- Skilling, Peter (2012), "Introduction: Thoughts on Buddhist Narrative," ed. by Peter Skilling and Justin McDaniel, *Buddhist Narrative in Asia and Beyond Vol I*, Chulalongkorn University.
- Skilton, Andrew (2004), *A Concise History of Buddhism*, Windhorse Publication.

## ■ Abstract

### *Dasa-Bodhisatta-Uddesa:*

#### Understanding Theravāda Perspectives in Khmer Tradition

Ahn, Jae-Geun & Kim, Kyung-Rae

This article scrutinizes and analyzes the textual characteristics of a later narrative, the *Dasa-Bodhisatta-Uddesa*. This narrative, which had been a popular text of the Khmer tradition in the history of extensive Theravāda Pāli literature,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texts that led the faith of the time, although not much known in the academic scholarship. It contains prophecies that the ten living beings who lived at the time of Gotama Buddha will be awakened in the future. Chapters 9 and 10 convey an interesting narrative of two elephants that are deeply related to the Gotama Buddha. Chapter 9 has an elephant named Dhanapāla, who will be reborn as Prince Dhammasena and become a future Buddha called Tissa by being reborn as a Tusita heaven through the extreme offerings. Chapter 10 describes the story of Pālileyya, a sacred elephant who protected and paid homage to Gotama Buddha while the Buddha was dwelling alone in the forest. Pālileyya will be reborn as a King “Turner of the Wheel,” and kill himself with extreme offerings. He will eventually be reborn as a future Buddha called Sumaṅgala.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texts in these two narratives are as follows. First, the *Dasabodhisatauddesa* specifically describes the time of the emergence of future Buddha, which seems to have further expanded the cyclical world view of the Theravāda tradition. Second, Buddhas are depicted as exaggerated transcendents. In this literature, the Buddhas are over 30 meters tall and have an infinite lifespan, emitting rays of light to

illuminate the world. Third, the period of these Buddhas is transformed into an ideal world in which the kappa tree grows and grants all the wishes of all sentient beings, which fulfills such a soteriological fantasy. Lastly, the Khmer vernacular Pāli system is found within the narratives, such as the use of tense, the order of compound words, and the special word usage that are not found in the extant Pali literature. These analyses reveal the unique literary tradition of the Khmer tradition as represented by *Dasabodhisattauddesa*.

<Keywords>

Khmer, Theravāda Tradition, Pāli, *Dasabodhisattauddesa*, Tissa, Sumaṅgala, narrative

■ 논문투고일 : 2025. 1. 7 ■ 심사완료일 : 2025. 2. 25 ■ 게재확정일 : 2025. 3. 4